

# 미얀마 친구 한국 초청 위해 '발로 댄 우정'

### 광주 청소년 10명 '미얀마 1500불 프로젝트' 기획

### 8개월간 모금운동·벼룩시장으로 경비 마련 해외봉사 중 만난 친구에 '2박3일' 추억 선물

#### 광주 YMCA 후원

'너희를 만나러 꼭 한국에 찾아 갈 거야.'

미얀마 이라와디주(州) 파테인 마나와 리 마을에 살고 있는 보타(19)군의 꿈이 현실로 이뤄졌다. 올 초 겨울 방학 때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한 '청소년 해외봉사단' 3기 단원으로 미얀마를 찾았던 한국 친구들이 떠나는 게 아쉬워 다짐처럼 했던 일이었다.

당시 '청소년 해외봉사단 3기' 소속으로 미얀마를 찾았던 학생들은 보타의 말에 '꼭 한국으로 초청할게'라고 약속했다. 광주로 돌아온 학생들은 보타와의 약속

속을 지키기 위해 해외봉사단 1, 2기 선배들과 함께 모여 '미얀마 1500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지난해 광덕고 2학년으로 봉사단 2기로 파견됐던 정승광(20·전북대 1년), 이우경(여·20·조선대 1년), 임의찬(19·상무고 3년), 강동은(18·대성여고 2년), 서윤정(18·대성여고 2년) 하명은(여·18·동명고 2년)이 참여했다.

"미얀마에서 보타와 했던 약속을 이야기하자 1~2기 선배들이 광주로 초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어요. 모금활동을 벌이면 금방 돈을 모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8개월이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강동은 양)

학생 7명이 보타의 한국 방문을 위해 모아야 하는 여행경비는 240만원이었다. 미얀마 봉사를 갔었던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십시일반 용돈을 거뒀지만 모은 돈은 26만원 남짓.

이들은 모자란 경비를 채우기 위해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7월 '친구를 초청하고 싶어요'라는 팸플릿과 모금함을 들고 광주시내를 돌아다녔다. 하루 4시간 남짓 모금한 돈은 13만원에 그쳤다. 8월에는 광주 YMCA 앞에서 벼룩시장을 열었지만 수입은 4만2000원.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페이스북 등 SNS에 사연을 올리는 등 꾸준한 모금운동을 벌여 목표액 210만원을 모았고, 광주 YMCA의 후원을 받아 친구를 초청했다.

"우리는 해외봉사에서 '배풀고 돌아오겠다'고 마음먹었었죠. 막상 미얀마 친구들을 만나면서 주려고 했던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았습니다. 그 느낌이 포기하지 않고 모금활동을 벌이는 데 큰 힘이 됐어요."

학생들의 노력과 정성이 쌓이면서 보타 군은 지난 11일 광주를 찾았다. 학생들은 보타와 함께 무등산 산책에 나서고 문화체험센터관을 찾아가 광주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YMCA 금남로본관에 모여 해외봉사단 참가자 60여명을 초청해 미얀마에서 배웠던 전통춤과 아리랑 공연으로 환영회도 치렀다.

어린 학생들에게서 광주의 정(情)을 선물 받은 보타군은 2박3일의 짧은 추억을 뒤로하고 지난 13일 고향인 미얀마로 돌아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지난 12일 광주 동구 무등산 중심사를 찾은 청소년 해외봉사단원들과 보타군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위> 보타군을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원들. <아래>

# 영산강 하구둑 개선사업 예산 '줄줄' 섰다

### 영암호 수문공사 설계 변경으로 468억 증액해 낭비

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15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2공구인 영암호 수문공사가 일괄 입찰과 과다한 설계 변경 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암호 수문공사 입찰공사

에서 낙찰된 건설사가 공사 수주를 포기하자 재입찰하지 않고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없다"며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았더라도 최초 낙찰자와 차순위 낙찰자의 사업비 차이가 500억 원이나 나면 재입찰해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애초 2011년 계약금액에 추가로 세 번의 물가변동을 반영해 112억원이, 설계변경(통선물시설)으로 468억원이 증액된 점, 통선물 설치가 애초 설계에서 누락된 점 등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진행됐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배수갑문 위에 전망대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위험 사항을 피하려고 편법을 동원했

다고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배수갑문 위 도로 교량 상부에 전망대와 산책로 등을 설치하면서 불법 시설물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았으면서도 홍수예방 및 침수방지 목적의 신설 배수갑문(교량 포함)이라며 다시 질의해도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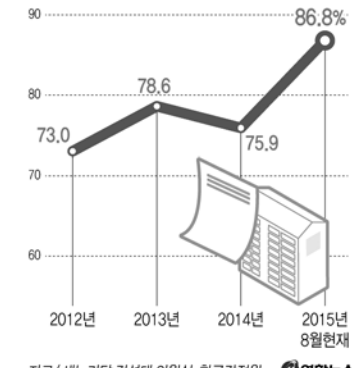
김 의원은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은 4대강 사업의 졸속 추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사의 업무는 보편타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행정처리와 예산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jkpark@

### 광주 부동산 거래 92.1% 시세보다 높게 신고

### 실거래 신고제 유명무실

#### 2015 국민 부동산 '업계약' 거래 비율

부동산 거래를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비율



광주지역 부동산 거래 10건 중 9건 이상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되는 등 실거래 신고제가 유명무실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15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집계된 광주지역 부동산(다세대·아파트·연립) 거래신고 1만7468건 중 92.1%인 1만6088건이 시세보다 높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92.6%(10만2654건 중 9만501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남은 72.0%(1만2592건 중 9070건)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 10건 중 8건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다세대·아파트·연립) 거래신고 242만8천건 중 78.5%가 시세보다 높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비율은 2012년 73.0%, 2013년 78.6%, 2014

년 75.9%로 70%대를 유지하다 올해 86.8%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한 건수가 전체의 80%에 육박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투기성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실거래 신고제를 무색하게 하는 허위신고를 발본색원하려면 신고에 대한 적정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의심거래로 확인되면 해당 행정기관에 제공·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 대법 "바람 피운 배우자 이혼 청구 안돼"

### 파탄주의 도입 시기상조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이 깨지는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았다. 2000년 집을 나온 B씨는 이 여성과 동거를 하다 2011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현 단계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 도입이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연행뉴스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 교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가운데 남북이 15일 낮 12시 50분께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했다.

한적의 의뢰서에는 일반 이산가족 200명과 국군포로 이산가족 50명의 주소와 나이, 이름, 가족 관계 및 이름 등이 적힌 명단이 포함됐다. 북측도 이날 200명의 명단이 담긴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한적측에 넘겼다. 앞서 한적은 지난 9일 컴퓨터 추첨으로 1차 후보자 500명을 뽑은 데 이어 14일 2차 후보자 200명을 선정했다. 국군포로 이산가족들은 별도로

뽑았다. 한적 관계자는 "이번에는 대부분 고령자들이 많이 들어갔고,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가 지난해 보다 10% 이상 증가했다"면서 "가족관계도 직계와 형제자매들이 지난해 보다 많이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남측은 의뢰서에 적힌 사람들의 생사 확인 등을 한 뒤 다음 달 5일 결과 회보서를 주고받기로 했다.

한적은 상봉 의사와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 뒤 다음 달 8일 최종 상봉 대상자 100명의 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다. /\*연행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회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산 여성' 회망 31~58세</p> <p>VIP 회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회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운대빌딩 B10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